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김수한 /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전유정 / 경제환경연구부 전임연구원

배경과 목적

-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시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엔 인간정주위원회(HABITAT)와 중국사회과학원의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GUCR)」 자료를 활용함
- GUCR은 광범위한 조사 대상, 프로젝트 수행의 연속성(2011년부터 매년) 등으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한 유용한 자료임. GUCR은 글로벌도시 경쟁력 관련 유력 조사 가운데 인천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드문 경우임

시사점 및 제언

- **GUCR-인천 글로벌경쟁력 참고 척도로 활용** : GUCR은 △세계 전역 1,000개 도시 조사라는 ①포괄성, 10여 년간 매년 수행된 조사라는 ②연속성, 지속가능경쟁력과 경제경제력을 구성하는 지표를 갖추고 있다는 ③체계성, 그리고 유엔기구와의 공동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는 ④신뢰성을 갖춘 조사임. 이에 인천의 글로벌경쟁력 진단을 위한 참고척도로 사용할 것을 제언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글로벌 시정 방향 수립 및 컨센서스 확립** : GUCR의 동아시아 역내 도시 발전패턴 등을 참고하여 맹목적인 성장형 발전전략의 추구가 아닌, 균형/창조/소통의 시정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글로벌 시정 방향에 도입하고, 혁신경제 육성과 글로벌연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의 구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사이의 컨센서스를 확립하도록 함. 그 첫걸음을 2023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이 이슈브리프는 김수한·전유정.(2022:21-31)에서 조사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1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GUCR)」 개요

◆ GUCR은

-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GUCR)」는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도시 종합경쟁력 분석 프로젝트이자 보고서의 제목임
- GUCR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도시 종합경쟁력 측정 위한 지표체계 개발하여 사용
- GUCR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1,000개 이상 도시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측정하여 매년 요약보고서를, 격년 심층보고서를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

- 1970년대 들어 도시화가 인간 정주에 미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제기
- 1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 개최(1976). 유엔 산하 최초의 위원회 인간 정주위원회 설립(1976). 유엔 인간 정주센터 설립(1978). 2002년 現 유엔 인간 정주프로그램(유엔 해비타트) 설립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 다양한 연구·조사와 공론화 활동 전개

(중국사회과학원 C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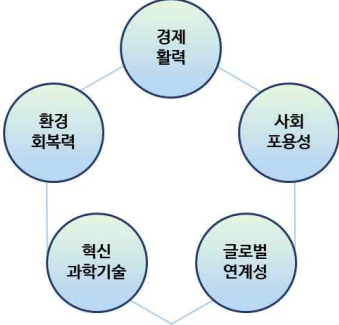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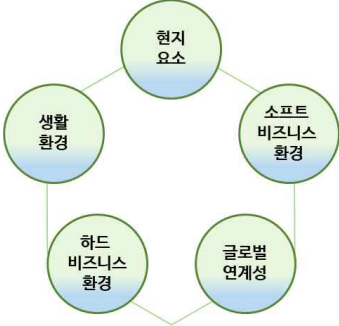
-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산하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部級). 1977년 설립
- 2020년 기준 40개의 연구소와 180개 연구센터 운영. 대학원 운영. 3,200여 명의 연구원을 포함하여 재직 인원 4,200여 명의 대형 관방 싱크탱크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정보 참고하여 저자 정리

◆ GUCR 지표 구성 및 특징

- GUCR은 매년 1,000여 개 도시들의 지속가능경쟁력 및 경제경쟁력 비교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여 측정하고 그 순위를 공표함
- 2020년부터는 기존의 지속가능경쟁력 측정과 별도로 경제경쟁력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세계도시 글로벌 경제경쟁력 등수를 산출하여 발표
-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순위를 매년 공표하고 있어 경쟁력 순위·추이 비교에 유용함
- ※ 글로벌도시 경쟁력 비교 관련 유력 조사 가운데 인천을 포함하는 유일한 보고서임
- GUCR은 인천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 도시를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제경쟁력 세부 항목 순위를 공개
- GUCR을 활용하여 인천 글로벌경쟁력의 다양한 요소를 초보적이거나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 도시의 발전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가능

[표 1] GUCR 지표 구성 및 특징

분야	세부 항목	특징
지속가능 경쟁력 측정 지표		- UN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반영 - 경제활력 외에 환경회복력·포용성 강조 - 유럽·동아시아 선진국 (일본, 한국 등) 도시 상위 순위 5년 평균 GDP 성장률, 생태적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지니 계수) 등 측정에 반영
경제 경쟁력 측정 지표		-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하되 항목을 재구성하고 지표를 신설하여 경제력 측정에 특화 - 인구 등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도시, 특히 중국 대도시들이 상위 랭크 - 중국 도시군(城市群) 특징이 지표에 반영 - 시장자금 편리성, 총노동인구, 1인당 소득, 정보·운송 편의성, 다국적기업 밀집도 등 측정에 반영

자료(출처):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속가능경쟁력 지표에 비해 경제경쟁력 지표 → 중국 도시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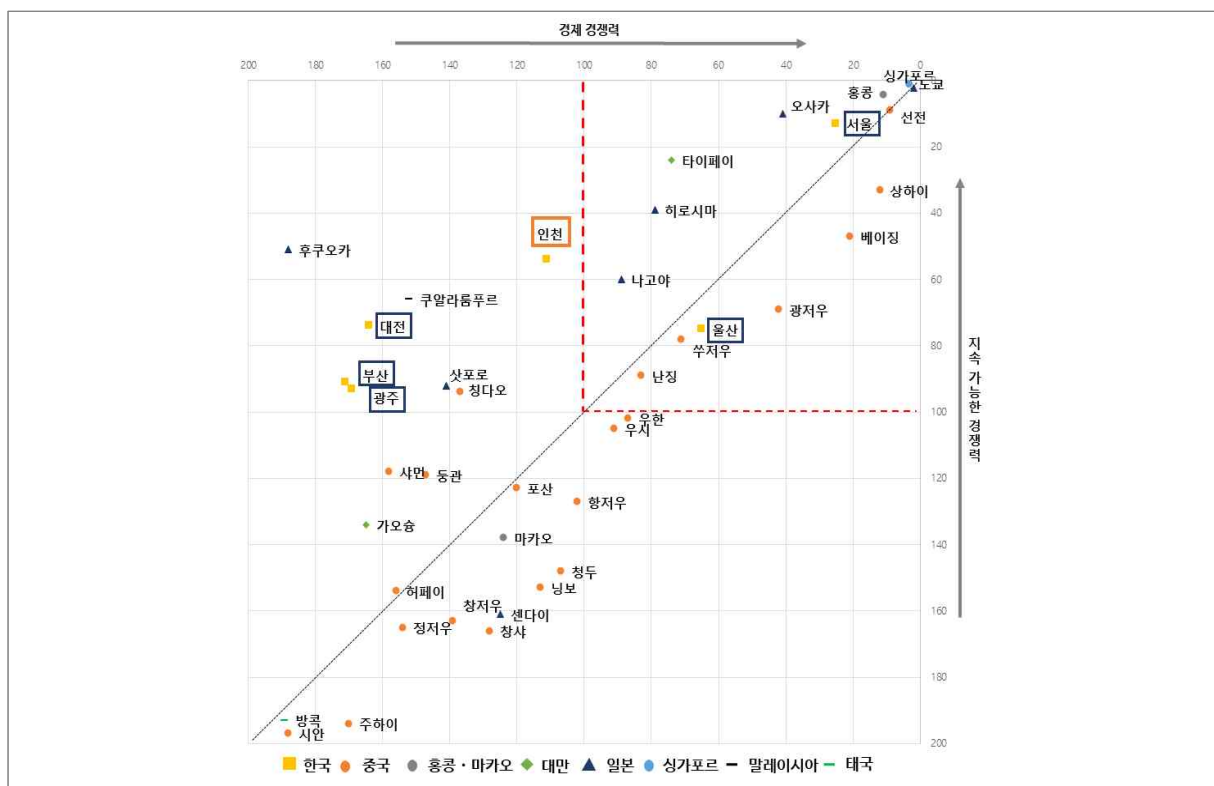
- GUCR의 지속가능경쟁력 측정의 경우 선진국의 성숙형 대도시가 상위 순위에 랭크되지만, 경제경쟁력 지표를 사용하면 성장형 특대도시, 특히 중국 거점 대도시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함
- 지속가능·경제경쟁력지표의 세부 지표는 <표 5>와 <표 6> 참고

2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순위

◆ 글로벌경쟁력 순위(2020~2021)

- 최신 GUCR(2020~2021) 가운데 글로벌 순위 200위 내의 동아시아 도시를 추출하여 [그림 1] 및 [표 2]와 같이 정리함
 - 지속가능경쟁력 및 경제경쟁력 모두에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도시국가, 도쿄·서울 등의 국가 수도, 중국의 권역 거점도시인 선전(주장삼각주), 상하이(창장삼각주) 등이 최상위 순위를 기록함
- 인천은 지속가능경쟁력 세계 54위/동아시아 12위에 랭크됨. 경제경쟁력은 세계 111위/동아시아 20위 수준을 보임
 - 서울시는 지속가능경쟁력 세계 13위/동아시아 6위 그리고 경제경쟁력 세계 25위/동아시아 7위를 기록함
 - 한국 도시 가운데 인천이 서울의 뒤를 잇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모두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가능경쟁력 50위권에 이름을 올림
 - 울산의 경우 경제경쟁력 순위가 지속가능경쟁력 순위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1]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순위 비교 (지속가능경쟁력 vs 경제경쟁력)



자료: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GUCR 순위 (2020-2021)

도시	국가/지역		지속가능경쟁력		경제경쟁력	
			세계 순위	동아시아 순위	세계 순위	동아시아 순위
도쿄	일본	-	1	1	3	2
싱가포르	싱가포르	-	2	2	2	1
홍콩	중국	화남	4	3	11	4
선전	중국	화남	9	4	9	3
오사카	일본	-	10	5	41	8
서울	한국	-	13	6	25	7
타이베이	대만	-	24	7	74	12
상하이	중국	화동	33	8	12	5
히로시마	일본	-	39	9	79	13
베이징	중국	화북	47	10	21	6
후쿠오카	일본	-	51	11	190	44
인천	한국	-	54	12	111	20
나고야	일본	-	60	13	89	16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66	14	152	31
광저우	중국	화남	69	15	42	9
대전	한국	-	74	16	164	35
울산	한국	-	75	17	65	10
쑤저우	중국	화동	78	18	71	11
난징	중국	화동	89	19	83	14
광주	한국	-	91	20	171	39
삿포로	일본	-	92	21	141	28
부산	한국	-	93	22	169	37
칭다오	중국	화동	94	23	137	26
대구	한국	-	101	24	201	47
우한	중국	화중	102	25	87	15
우시	중국	화동	105	26	91	17
타이중	대만	-	111	27	203	51
톈진	중국	화북	114	28	264	48
샤먼	중국	화남	118	29	158	34
둥관	중국	화남	119	30	147	29
포산	중국	화남	123	31	120	22
항저우	중국	화동	127	32	102	18
가오슝	대만	-	134	33	165	36
마카오	중국	화남	138	34	124	23
청두	중국	화동	148	35	107	19
닝보	중국	화동	153	36	113	21
허페이	중국	화중	154	37	156	33
중산	중국	화남	160	38	221	49
센다이	일본	-	161	39	125	24
창저우	중국	화동	163	40	139	27
정저우	중국	화중	165	41	154	32
창샤	중국	화중	166	42	128	25
타이난	대만	-	173	43	240	50
방콕	태국	-	193	44	189	43
주하이	중국	화남	194	45	170	38
시안	중국	서북	197	46	188	42
지난	중국	화중	216	47	193	45
난퉁	중국	화동	230	48	175	40
충칭	중국	서남	231	49	196	46
취안저우	중국	화남	255	50	180	41
창원	한국	-	263	51	149	30

자료(출처):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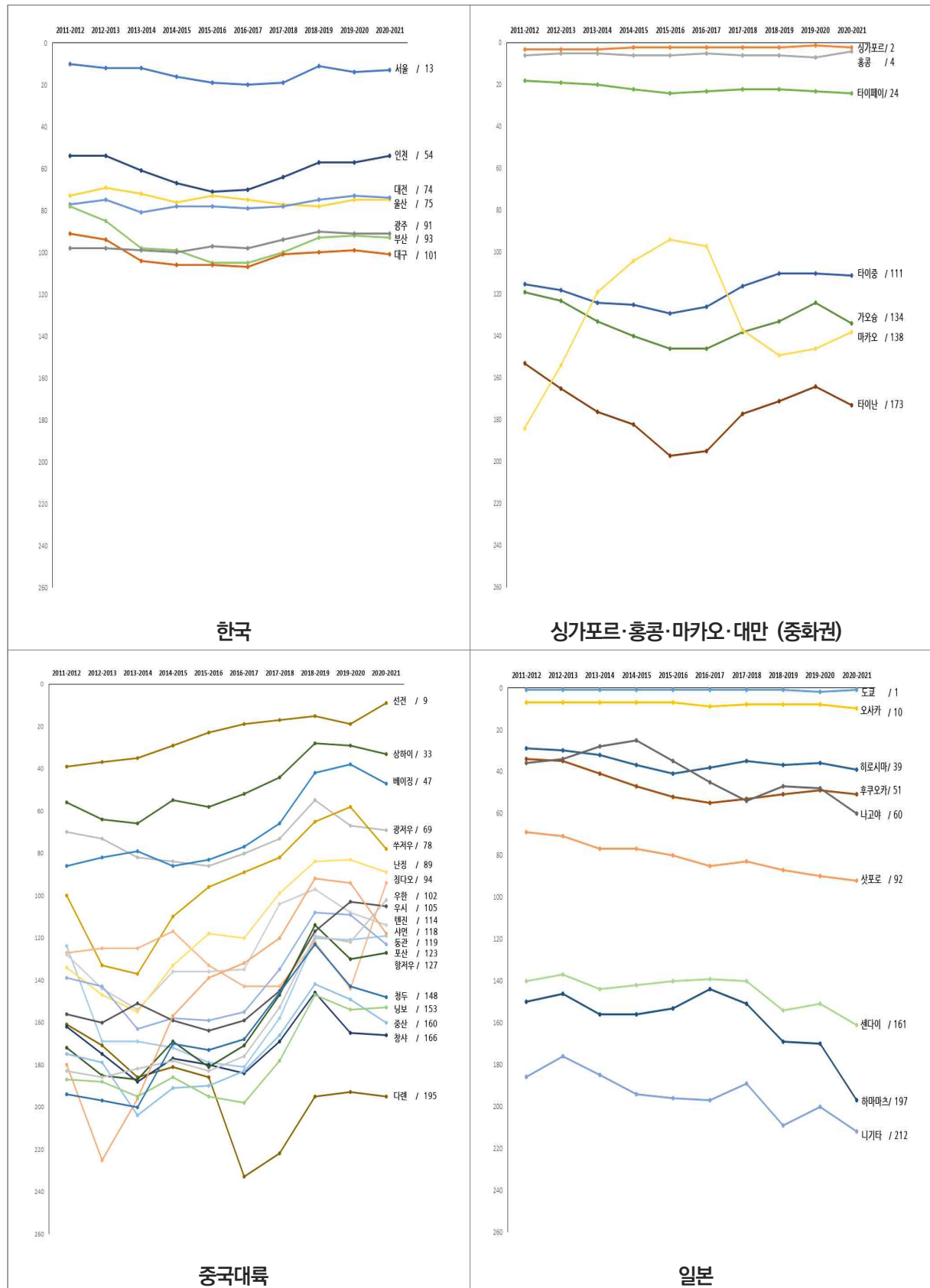
● 국가별 추이 (2011~2021)

- 동아시아 국가별 주요 도시의 GUCR 지속가능경쟁력 세계 순위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음
- (한국) 광역지자체 대부분 지속가능경쟁력 100위권 유지
 - 수도권 서울이 줄곧 지속가능경쟁력 세계순위 10위권 초반을 기록,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순위가 소폭 하락함
 - 인천을 비롯한 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지속가능경쟁력에서는 100위 내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임
- (중화권) 중국대륙 외의 범중화권 도시의 경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이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지속가능경쟁력 최상위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도 20위권에 랭크됨
 - 대만 직할시 가운데 중부의 신흥 경제선도 도시인 타이중의 순위가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지만 남부의 전통적 제조업 도시인 가오슝의 순위는 하락세를 보임¹⁾
 - 카지노 산업 의존도가 높은 마카오의 순위 변동이 매우 큼²⁾
- (중국대륙) 19개의 중국 대도시가 200위 권에 진입해 있으며 역동적인 위상향의 순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선전의 경쟁력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홍콩민주화시위 여파(2019년)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 후 다시 반등함
 -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 및 광저우 등 동부 연해지역 성도의 경쟁력이 높게 측정됨
 - [그림 3]과 같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와 홍콩·선전·광저우의 주장삼각주 권역의 도시군 집 현상이 두드러짐
- (일본) 수도인 도쿄가 지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오사카 역시 20위권의 경쟁력 시현. 그러나 다른 도시의 순위는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임
 - 도쿄와 오사카 외 일본 도시의 지속가능경쟁력 순위가 지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보임. 100위권 내의 나고야와 삿포로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부권의 하마마츠와 니가타의 순위 역시 급락함
 - 도쿄와 오사카 등 선도 도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여파와 일본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도시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됨

1) 대만 6대 직할시 경제 산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김수한·전유정. (2021) 참고

2) 큰 폭의 마카오 순위 변화는 경기변동과 정책리스크에 취약한 카지노 산업의 약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2000년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외국자본 투자에 힘입어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급성장함, 2012년 말 집권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사정으로 인해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 연합뉴스(2019.12.18.) 참고

[그림 2] 동아시아 국가별 주요 도시의 GUCR-지속가능경쟁력 순위 추이(2011~2021)



자료: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GUCR 상위 순위 도시(1위~200위)의 동아시아 지역분포



자료: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글로벌경쟁력 세부 항목 비교

● 글로벌경쟁력 세부 항목 순위

□ GUCR은 격년 심층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구성 세부 항목 순위를 공개하고 있음

- 매년 요약보고서에는 세계 최상위권 도시에 한정된 분석을 리포팅함. 인천을 비롯한 세계 50권 밖 도시에 관한 내용은 총 순위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루지지 않음
- 반면 격년 심층보고서에서는 1,000개 도시의 지속가능경쟁력을 구성하는 경제활력·환경복원력·사회포용성·혁신기술·글로벌 연결 등 세부 항목의 순위와 표준화 지표의 합산 값을 공개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쟁력 세부 항목은 [표 5] 참고
- 경제경쟁력을 구성하는 현지요소·생활환경·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환경·하드웨어 비즈니스 환경·글로벌 연결·산업요소 등의 세부 항목 순위 역시 공개하고 있음
- 경제경쟁력 세부 항목은 [표 6] 참고

※ 그러나 GUCR 심층보고서 역시 타 유력 글로벌경쟁력 측정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항목별로 구체적인 순위 기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최근의 심층 보고서인 GUCR(2019~2020)의 동아시아 주요 도시 세부 항목 순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표 3]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GUCR 세부 항목 순위(2019~2020)

도시	국가/지역		지속가능 경쟁력					
			글로벌 순위	경제 활력	환경 복원력	사회 포용성	혁신 기술	글로벌 연결
도쿄	일본	-	1	1	5	41	14	18
싱가포르	싱가포르	-	2	183	106	1	1	19
홍콩	중국	화남	7	98	9	151	22	31
오사카	일본	-	8	224	141	4	11	103
서울	한국	-	14	213	259	2	7	27
선전	중국	화남	19	24	85	98	33	56
타이베이	대만	-	23	140	68	5	16	57
상하이	중국	화동	29	201	458	47	9	7
히로시마	일본	-	36	146	90	26	181	280
베이징	중국	화북	38	223	716	50	3	4
후쿠오카	일본	-	48	128	225	12	62	183
인천	한국	-	57	179	279	35	165	453

도시	국가/지역		경제경쟁력						
			글로벌 순위	현지 요소	생활 환경	소프트 웨어	하드 웨어	글로벌 연결	산업 요소
싱가포르	싱가포르	-	2	7	19	5	15	4	3
선전	중국	화남	4	1	162	59	86	37	76
도쿄	일본	-	6	17	1	1	55	20	1
상하이	중국	화동	10	5	197	47	182	5	20
홍콩	중국	화남	13	28	108	3	300	11	12
서울	한국	-	15	9	49	8	37	38	10
베이징	중국	화북	17	39	192	38	138	2	4
광저우	중국	화남	18	45	87	88	209	29	60
쑤저우	중국	화남	25	63	201	92	482	100	250
오사카	일본	-	29	59	3	9	79	120	42
난징	중국	화동	42	54	257	65	279	41	77
우한	중국	화중	43	120	419	86	443	51	64
타이베이	대만	-	44	48	17	6	81	64	7
인천	한국	-	131	251	253	76	221	333	366

자료(출처):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19~2020)」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속가능경쟁력 세부 항목 순위

- 지속가능경쟁력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순위에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국가·수도(권역 거점도시)의 경우 혁신기술 및 글로벌연결 항목의 순위가 높게 측정됨
 - (혁신기술) 싱가포르 1위, 베이징 3위, 서울 7위, 상하이 9위, 오사카 11위, 도쿄 14위
 - (글로벌연결) 베이징 4위, 상하이 7위, 도쿄 18위, 싱가포르 19위
- 환경복원력 및 사회포용성 항목에서 중국 도시들이 매우 저조한 경쟁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일본·싱가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음
 - 환경복원력 항목에서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716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 수준을, 상하이 역시 458위를 기록함. 중국 대도시의 환경오염 및 교통난 등의 사회문제가 측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사회안전/사회 형평성(지니계수) 등 지표로 구성된 사회포용성 항목에서 싱가포르와 서울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인천 역시 35위로 높은 순위에 랭크됨
- GUCR(2019~2020)에 따르면 인천의 지속가능경쟁력 글로벌 순위는 57위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사회포용성 항목에서 35위를 기록함
 - 인천은 경제활력 179위/혁신기술 165위/환경복원력 279위를 기록. 그러나 글로벌연결 항목에서는 453위로 저조한 경쟁력을 보임
 - 항공사·운송 연결성 등 인천의 공항만 물류 인프라 여건에 유리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학연구자/금융/과학기술기업 연결성 등 다른 열위 지표로 인해 순위 측정값이 낮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 경제경쟁력 세부 항목 순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UCR은 2020년부터 지속가능경쟁력 세부 지표를 재구성하고 일부 신규 지표를 활용, 경제경쟁력 순위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음. 중국 도시가 지속가능경쟁력 순위에 비해 상위에 랭크됨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선전이 세계 4위, 상하이 10위, 베이징 17위, 광저우 18위를 기록함. 인천은 131위로 지속가능경쟁력 대비 낮은 경제경쟁력을 보임
 - 사회경제인프라와 인재가 밀집해 있는 도시국가·수도 등이 현지요소·소프트/하드비즈니스환경·산업요소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GUCR(2019~2020)에 따르면 인천의 경제경쟁력 글로벌 순위는 131위이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환경 세부 항목이 76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소프트웨어 비즈니스환경 항목은 사회안전·시장화·개방성·고등교육 등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다국적은행/다국적과학기술기업/다국적기업 등 지표로 구성된 산업요소 부문에서 366위의 저조한 순위를 기록함
- 지속가능경쟁력 측정과 마찬가지로 정보/과학연구자/금융기업/과학기술기업 연결성이 포함된 글로벌연결 부문에서도 333위로 낮은 순위에 랭크됨

[표 4] GUCR의 지속가능 경쟁력(Sustainable Competitiveness) 세부 지표

분야	세부 항목	세부지표
경제활력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세계은행의 사업용이 지수
	재산권 보호	국제재산권보호보고서
	청년인구비율	청년인구(16-45세) 비율
	경제성장률	5년 평균 GDP 성장률
	노동생산률	GDP/노동인구(15-59세)
환경 회복력	교통 편의	넘베오(numbeo) 교통 지수1)
	전원 공급	야간조명데이터
	생태적 다양성	산림·호수·녹지·습지 등 총10개 지형지물 면적
	기후쾌적도	기온, 강수, 악천후, 가시도 종합지표
	환경오염도	PM 2.5, 1인당 CO ₂ 배출량, 1인당 SO ₂ 배출량 종합지표
	자연재해	6대 주요 자연재해의 데이터 기반 추산
사회 포용성	역사 및 문화	박물관 수
	사회안전	범죄율
	사회적 형평성	지니계수
	생활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개방성	스타벅스·맥도날드·월마트 매장 수
	의료시설	1인당 의료시설 수(보건의료접근성·품질(HAQ)지수기반)
혁신 과학기술	특허출원	특허 수
	학술논문	출판된 논문 수
	과학기술기업	과학기술기업 본사 분포
	대학	도시별 상위대학 분류 및 점수
	문화시설	도서관 수/도시 면적
글로벌 연결성	항공사 연결성	항공편 수
	정보 연결성	구글 트렌드·바이두 트렌드
	과학 연구자의 연결성	등재된 공동 저자 논문 수-밀집도 계산
	금융기업 연결성	75대 다국적 금융사 분포-밀집도 계산
	과학기술기업 연결성	25대 다국적 과학기술 기업 분포 -밀집도 계산
	운송 연결성	항만 여객선 운송 연결 지수

주: 1) 글로벌국가·도시비교통계사이트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

2) 지속가능 경쟁력 측정에만 사용된 세부지표를 진하게 표시함

자료(출처):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2022:99-100)

[표 5] GUCR의 경제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 세부 지표

분야	세부항목	세부지표
현지요소	간접시장자금의 편리성	비즈니스환경보고서의 신용 가용 지수
	직접시장자금의 편리성	거래소와 글로벌 상장기업의 거래량
	학술논문	출판된 논문 수
	특허출원	특허 수
	청년인구비율	청년인구(16-45세) 비율
	총노동인구	총 노동인구 수(15-59세)
생활환경	역사 및 문화	박물관 수
	의료시설	1인당 의료 시설 수(보건의료접근성·품질(HAQ)지수기반)
	기후쾌적도	기온, 강수, 악천후, 가시도 종합지표
	환경오염도	PM 2.5, 1인당 CO ₂ 배출량, 1인당 SO ₂ 배출량의 종합 지표
	시민소비	1인당 가처분소득
	생활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피트니스 및 레저시설	골프장 수
	문화시설	도서관 수/도시 면적
소프트 비즈니스 환경	사회안전	범죄율
	시장화	경제자유지수
	개방성	스타벅스·맥도날드·월마트 매장 수
	재산권보호	국제재산권보호보고서
	고등교육	도시별 우수대학 분류 및 점수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세계은행의 사업용이
하드 비즈니스 환경	교통 편의	넘베오(Numbeo) 교통 지수
	전원 공급	야간조명데이터
	정보 편의성	인터넷 속도
	운송 편의성	상위 100개 항만과의 거리
	공항시설	공항 인프라 점수
	자연재해	6대 주요 자연재해의 데이터 기반 추산
글로벌 연결성	항공사 연결성	항공편 수
	정보 연결성	구글 트렌드·바이두 트렌드
	과학 연구자의 연결성	등재된 공동 저자 논문 수-밀집도 계산
	금융기업 연결성	75대 다국적 금융사 분포-밀집도 계산
	과학기술기업 연결성	25대 다국적 과학기술 기업 분포-밀집도 계산
	운송 연결성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항만 여객선 운송 연결 지수
산업 요소1)	다국적 은행	은행 100대 기업본부 분포-밀집도 계산
	다국적 과학기술기업	과학기술 100대 기업본부 분포-밀집도 계산
	다국적 기업/회사	포브스(Forbes) 2000개 다국적기업 분포-밀집도 계산
	노동생산률	GDP/노동인구(15-59세)
	대학 지수	도시별 상위대학 분류 및 점수

주: 1) 경제 경쟁력 지표는 2019-2020년까지 6대 분야로 구성. 2020-2021년부터 ⑥산업분야 미적용

2) 경제 경쟁력 측정에만 사용된 세부지표를 진하게 표시함

자료(출처):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20-2021(2022: 97-98)

4 종합 및 시사점

◆ GUCR의 장점 및 한계

□ 인천의 글로벌경쟁력 진단을 위한 척도 제공

- 초일류 도시 구현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인천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우선 시행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천의 글로벌경쟁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가 필요함
- 이 같은 점에서 GUCR은 2011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수행된 조사라는 ▲연속성, 세계 전역의 1,000개 도시에 대한 조사라는 ▲포괄성, 그리고 지속가능경쟁력 및 경제경쟁력을 구성하는 측정지표를 갖추고 있는 ▲체계성, 그리고 유엔 기구와 공동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조사라고 판단됨
- 특히 상위 순위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여타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보고에서 다뤄지지 않는 인천이 측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GUCR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

〈주요 글로벌도시 경쟁력 보고서〉

- Global Power City Index(일본모리기념재단) : 48개 도시 대상으로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거주적합성·환경·접근성 관련 26개 지표로 구성. 인천 정보 부재
- Global Cities Index(미국 AT커니) : 전 세계 150개 도시 대상으로 기업활동·인적자원·정보교환·문화경험·정치참여도 관련 29개 지표로 구성. 인천 정보 부재

자료: 김수한·전유정(2022:21)

□ 세부항목 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지표 값 비공개

- 일반적으로 도시경쟁력 측정 과정은 ①지표 선정→②표준화→③가중치 부여→④종합점수화임
- 세부지표 가운데 전문가 자문 또는 AHP(계층분석법) 등을 통한 ③가중치 부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따른 독특한 연구결과(도시의 등수)가 산출되기도 함
- GUCR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력 조사는 이 가중치 부여 값을 비공개로 처리함. 이에 GUCR 등 조사가 갖는 임의적 주관성을 경계해야 함
- 이에 GUCR 등에서 공표하는 글로벌도시 경쟁력 순위를 절대적인 시정달성 목표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경향성 및 추이 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한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³⁾

3) 국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글로벌경쟁력 지표의 세부 항목을 각 부서의 달성목표로 삼도록 하여 민선 8기 임기 내 글로벌경쟁력 순위 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관계 시정연구기관 전문가 인터뷰 (2022.11.10.)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반영한 인천 글로벌 시정 방향

- GUCR의 지속가능경쟁력 vs 경제경쟁력 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역내 주요 도시 가운데 한국, 일본, 대만 등 개방적 시장경제 국가의 선도도시의 경우 선진국 같은 성숙형 대도시의 성장 추세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역동적인 순위 변화를 보이는 중국의 도시와 달리 이들 도시는 안정적인 위상향의 추세를 보이되 그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음. 또한 사회적 포용성/환경 탄력성 항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임
 - 반면 중국의 대도시들은 경제규모와 성장세, 도시군집 특징이 반영된 항목에서 강한 경제경쟁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 포용성/환경 탄력성 등 항목에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임
-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그 지향이 맞닿아 있음
 - (균형) 인천이 지향하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는 외자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성장형 발전모델이 아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을 반영한 보다 보다 균형적인 방향이어야 함
 - (창조) 인천 글로벌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요인을 판별하여, 혁신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재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인천은 공항·항만·IFEZ 등 전략자산과 물류기반이 우수하며 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앵커기업 입지와 높은 성장률 등 혁신경제를 위한 강점을 구비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기계·금속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비중과 저성장, 낮은 혁신지수와 신성장산업의 제한적 파급 효과 등의 약점을 지니고 있음⁴⁾. 이 같은 요인은 GUCR 측정에 반영되어 있음
 - (소통) 인천은 공항과 항만 등의 세계적 수준의 교통·물류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연결성 부분에서 열위 역량을 지닌 것으로 측정됨. 해외 연구개발 및 관련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성 지표에서 저조한 측정 값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위에서 제기한 혁신경제 육성과 연계하여 이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 뉴홍콩시티 구상에 균형·창조·소통의 시정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컨센서스 확립이 긴요
 - 인천시는 2023년 인천 장기 미래비전 구상인 뉴홍콩시티프로젝트의 설계에 착수함
 - 위에서 제기한 균형·창조·소통의 시정 핵심가치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천시 리더와 주관 정책부서,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리고 시민 간의 공감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4) 인천시 경제산업 강점과 약점 요인은 서봉만 외(2022) 참고.

▶ 참고문헌

[보고서·학술논문]

- 김수한·전유정 . (2022), 홍콩 사회경제 변화와 시사점. 인천연구원.
———. (2021). 인천-대만 도시 교류협력 기본방향과 과제. 인천연구원
김인. (2005). 세계도시론. 법문사.
서봉만 외. (2022).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수립. 인천연구원 (발간예정)

[전자문서자료]

-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2.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1-2012).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1-2012>(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3.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2-2013).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2-2013>(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4.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3-2014).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3-2014>(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5.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4-2015).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4-2015>(검색일 2022년 10월 13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6.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5-2016).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5-2016>(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7.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6-2017).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6-2017>(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8.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7-2018).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7-2018>(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19.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8-2019).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8-2019>(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20. Report on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ities Worldwide (2019-2020).
<https://unhabitat.org/global-urban-competitiveness-report-2019-2020-the-world-300-years-of-transformation-into-city>(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UN-HABITAT. 2021.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2020-2021).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20-2021>(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UN HABITAT. <https://unhabitat.org/report-on-sustainable-competitiveness-of-cities-worldwide2018-2019>(검색일 2022년 11월 21일)

[언론보도]

- 안승섭. (2019.12.18.) 마카오반환 20년, 카지노 의존 성장은 한계.... 산업 다각화 온 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191500074>(검색일: 2022년 12월 16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